

大學院國語教育科 教育課程 研究

李 應 百·李 杜 鉉·李 庸 周
丘 仁 煥·金 恩 典·李 相 翊

I. 序

人間의 성장과 발달을 특정한 方向으로 안내하고 지도한다는 점에서 教育은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의도한 결과를 낳게하기 위하여 內容과 方法과 節次와 組織을 구상한다는 教育은 또한 계획적인 행위다. 教育者, 즉 教師는 이 행위의 주도자이며 맡은 분야에 대하여 그 教育內容·方法·節次 및 組織에 능통해야 한다. 즉 특정 과목의 教師는 담당교과 전반에 관한 깊고도 넓은 지식과 이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方法의 理論과 實際에 정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의 教育이 대부분 學校라는 公式教育機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가 마련하는 教育政策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바, 教師는 이 분야에 대해서도 해당 교과에 관한 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教師는 충분한 前職教育을 받고 교단에 서는 教育專門家이다. 그는 公式教育의 일부를 기획·실천하는 실천인이며 행동가이다. 그는 실천인 행동인으로써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제반 사항에 관한 학문적·기술적·교양적 기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교과와 內容이나 교수법 자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어느 국어과 教師가 文學批評이나 教育學의 專門家일 수는 있으나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 기대를 갖는다. 바꾸어 말해서 教師는 실무적 책임을 진 응용과학자인 셈이다.

이같은 教師의 양성을 책임진 곳이 師範大學이다. 현행 教育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 바, 大學院 教育이 大學教育의 연장·심화·확대라고 볼 때 教育大學院의 설립 취지 또한 이에 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教育法 第5章 教育機關⁽¹⁾

第6節 教育大學과 師範大學

第118條 教育大學은 國民學校의 教員을 師範大學은 中學校와 高等學校의 教員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의 기회 균등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균질의

* 本論文은 1980年度 文敎部 學術研究 助成費에 의한 研究論文임.

(1) 教育週報社刊; 學校綜合法典, 1978.

교육을 제공받은 권리가 있다.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公式教育에서 더욱 그렇다. ‘教育’이란 추상적·복합적인 개념에 대해 “均質”이란,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이 불가능성의 암시가 균질화 노력을 포기하는 단서가 될 수는 없다. 우리 人間은 서로 대단한 개인차를 가진다. 한 사람의 전문인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뿐 아니라 성격·능력들로 대표되는 적성의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個人差가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지 모르나 教育現場을 놓고 볼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즉 教師의 個人差는 그의 대상인 學生들에게 대단한 불공평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든 教師가 일정 수준의 학문적·교양적·기술적 바탕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이 있다. 이는 새로이 배출되는 教師단을 이룸이 아니다. 教職에 종사한 연한에 관계없이 그들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師範大學은 가장 책임있는 教師養成機關으로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그 담당자를 양성할 의무를 아울러 갖게 된다. 즉 教科內容과 그 教育에 관한 專門研究人, 教育政策樹立者 및 教育行政家, 獎學士등 넓은 의미의 教科教育擔當者를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教育을 책임질 教授要員등 고급인력 양성역시 포함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각 개인에게 모두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가능성도 필요성도 없는 일이며, 또한 사회적 수요의 차는 단계별 분야별 구분을 필요로 한다. 즉 師範大學에서는 우수한 中等學校 教師 양성을 주로 하며 동시에 기타 專門研究人, 政策樹立者·行政家, 獎學士 및 教授要員 양성의 基礎教育을 실시하고, 大學院 이상의 수준에서는 後者의 양성을 專擔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大學院 中心教育을 지향하고 있는 서울大學校의 경우 大學院의 教育目標을 고급인력 양성에 들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확정된 教育目標의 달성을 위해서는, 이미 제시된 어떠한 목표에 대해서나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구상이 서야한다. 또 구상한 대로 실천이 따라야 하며 의도했던 결과를 산출해야 한다. 이와같은 과정은 教育 전과정에 걸쳐 부단히 재확인 되어야 하는 바, 목표의 非妥當性·不明瞭性이나 달성 과정 내의 각 요소간의 不一致는 教育行爲의 비전문성을 뜻하게 된다.

教育行爲를 專門化하려는 노력은 오랫동안 있어 왔다. 금세기에 들어 와 學校教育이 보편화되면서 一般의 教育認識도 높아지고 教育에 대한 요구도 크게 변모해 왔다. 이에 따라 각급 學校의 教育課程, 教育制度 역시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獨立 이후 수차례 걸쳐 각급 학교의 教育課程이 개편되어 왔다. 미래의 教育擔當者의 教育課程이라 할 師範系 大學·大學院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全世界를 휩쓸고 지나간 몇차례의 教育改革運動이나 새로운 理論들이 아직 이상적이고 결정적인 모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教育課程研究는 계획적인 人間變化를 설계하고 계획된 學習의 場을 운영·전개하고 그 성과를 評價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教育課程 思考는 그 범위가 넓고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에 따른 장단점이 얽혀 複合體로서의 教育課程의 定立·改善을 어렵게 한다. 體系的 研究가 先行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妥當性이 희박한 教育理念과 目標은 실패 요인이 된다. 또 目標—設計—展開—成果—目標로의 휘이드 백(feed back)이라는 과정 내에서 어떤 要素의 불충분이나 요소간의 일관성의 결여도 큰 문제가 된다. 教育課程 개선 노력의 실패는 그 노력의 산발성·단편성·부적합성에 기인하기도 한다. 즉 각 전문가가 자신의 특정 분야만을 연구했을 뿐 이들을 종합하는 應用科學이 미약하여 國文學에 關心이 있는 이는 國文學, 그것도 전공분야만을 깊이 研究하고, 教育學者는 教授—學習의 一般的 原理를, 心理學者는 10대의 心理分析에 전념함으로써 각자 특수한 이론적 경향에 따라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이 모든 노력을 하나의 教育課程 설계나 개선을 위해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기인이 없었던 것이다. 기존 教育課程이나 教育制度에 대한 종합적 研究·評價가 불충분한 위에서 보다 나은 教育課程의 탄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教育大學院 國語教育科의 教科課程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本攷는 위에 언급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무엇보다도 이는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는 作業이며 中等學校 教育課程 역시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는 師範大學 教育內容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과연 완벽하게 짜여져 있느냐는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다. 國語教育科의 경우 아직 博士課程이 設置되어 있지 않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된다. 師範大學 教育課程의 문제는, 기존의 그것이 構造나 內容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을수록 본 작업을 沙上樓閣化시켜버리기 때문이며 후자의 경우 그 유무가 碩士課程의 넓이와 깊이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教科課程은 어떠한 教育目標을 달성하기 위해 教授해야 할 일련의 教科目 일람을 말한다. 이는 教育課程의 現實化 方案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그 구성원의 교육효과를 크게 좌우하는 물론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本攷에서는 大學院 國語教育科의 教育課程개선에 관한 논의를 學部의 教科課程의 개선이라는 각도에서 진행하고자 한다.

師範大學 및 大學院 國語教育科에 관한 한 그 研究史는, 그 업적면에 있어서 실질상 全無한 상태나 다름이 없다. 우선은 '國語教育'이라는 것이 하나의 독립된 전문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 회의적인 대답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 現實이고, 그런 까닭에서인지 서울大學校 大學院 國語教育科의 경우 현재까지 배출된 80명의 碩士 가운데 國語教育에 관계있는 論文으로 學位를 취득한 이는 18명 뿐으로 아주 그 수가 적으며 그들 중에서도 教育課程에 관한 論文은 「國語教育研究의 史的 考察」⁽²⁾과 「中學校 國語科 教育課程의 변천과 그 特性에 대하여」⁽³⁾ 등 두 편 뿐인데 그나마도 中高等學校의 教育課程 문제를, 그것도 歷史的 變化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그 內容의 개선은 문제삼고 있지 않다.

(2) 千柄植; 國語教育研究의 史的 考察,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學位論文, 1968.

(3) 嚴辰雄; 中學校 國語科 教育課程의 變遷과 그 特性에 대하여,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學位論文, 1977.

물론 中·高等學校의 教育課程研究는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師範大學의 教育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것으로 師範大學의 教育目標을 삼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적으로 중·고등학교의 教育擔當者의 양성, 다시 말하면 師範大學의 教育은 教育課程의 집행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따라서 師範大學의 教育課程은 그에 알맞게 짜여져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와같은 目標의 달성을 위한 教科目的 教授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教科目 구성은 教科教育의 경우, 教科教育 擔當者보다는 教科 專門家의 양성에 치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中·高等學校의 國語科教育, 나아가서 師範大學 및 大學院의 현행 教科課程을 검토하고 보다 나은 教育을 위한 教科課程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現行 教育課程에 대하여

教育目標 달성 노력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형태인 教科課程으로서의 教育課程은 그 결정 요인에 관련된 제반 이론과 실제를 포함해야 하며 教授法의 原理도 체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教育課程 이론과 教育內容 전반에 관한 여러 주장들이 조직적으로 연구·검토되고 그 각각의 주장이 내세우는 이론적 근거의 극단적 편견에 매이지 않는 상호 보완적 원리를 찾아 教育의 실천과정에 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행 教育課程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의 하나는 硬直된 知識 傳達 위주의 教育課程이 構成 運營되고 있고 教科目 體制 역시 學問 分類 기준에 준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가르쳐야 할 지식 내용이 충분히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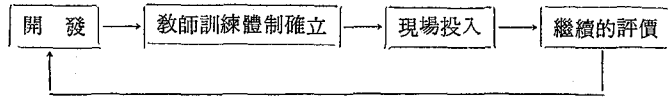
知識의 量的爆發現象은 끊임없는 지식의 체계 및 내용의 변화를 초래한다. 여기서 教育內容의 精選 및 體系化가 教育課程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教育課程의 伸縮性과 多樣性이 教育課程연구·開發의 기본 입장이 되는 것이다.

사실상 教育課程은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文書化되어 있는가 보다는 실제 教育課程이 어떻게 學校現場에 投入되며, 學習者의 變化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유도하며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 教育課程의 질적인 관리 문제는 바로 이러한 教育課程 운영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教育課程의 운영과 효과 판단을 教師에게 위임하고 있어 엄격한 의미의 效果 判斷이나 차후 改革의 자료로서의 이용도가 문제시되고 있다.

바람직한 教育課程의 開發 및 運營體制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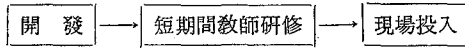
여기서 教師의 教育 및 訓練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教師는 教育課程 實現에 있어서 중추적인 존재로 教授方法뿐 아니라 態度·價値觀의 변화로서 教育에 임해야 하는 바, 적극

(4) 韓鐘河; 「教育課程開發에 있어서 몇가지 考慮事項」, 教育課程 開發의 原理, 韓國教育開發院, 1978.



적인 移行努力(implementation)의 주체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教育課程 개발은,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정작 교사 훈련 기관의 教育課程과는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장학지도 체계와도 실질적 교신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 교육과정 개발 방법 및 그 나후성은 효과적인 教育을 위한 教育課程 개발에 큰 障礙 要因이 되고 있다. 우선은 아이디어의 開發과 活用이 중요하고 다음은 專門人力의 養成이 시급하다. 이 두가지는 상호 연관성이 큰 문제점들인데, 아이디어의 부족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어렵게 하고 전문가가 없는 데서는 효과적인 아이디어의 개발이 용이할 리가 없다. 특히 教科別 教育課程 專門研究人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으며, 제도적인 양성장치와 훈련계획도 역시 아직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教育課程의 기본 이론이나 教科教育內容에 소양이 있다고 해서 教科教育課程을 개발해 낼 수는 없는 일이다. 높은 수준에서의 有關學問을 相互關聯지어 接近(interdisciplinary approach)할 것이 요망된다.

본고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師範大學·大學院 國語教育科의 教科課程 개선 시도는 이와같은 문제점 이외에 師範系라는, 그리고 國語科라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동시에 갖는다.

師範大學과 大學院의 教育系 學科는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中·高等學校 教育의 주역을 담당할 유능한 中·고등학교 教師와 各科 教育行政擔當者 및 專門研究人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그 教育內容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 A. 教育 一般에 관한, 이른바 教職科目
- B. 擔當할 教科의 專門的 內容
- C. 擔當할 教科의 教育에 관련되는 科目

A. 一般 教育學을 포함하는 教職科目은 教師로서 갖추어야 할 教育學的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교직과목은 그 교육내용이나 各科 教育과의 관계등이 문제되기도 하나 師範大學 및 大學院生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므로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다고 보아 이 문제는 본고에서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B. 흔히 '專攻科目'으로 불리우는 이 부분은 현재 師範大學 및 大學院 教育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다루게 될 전문적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전문지식의 습득이나 연구가 그 자체로서 師範大學 教育의 궁극적인 目標가 될 수는 없다. 師範大學 및 大學院의 國語教育科에서 國語學과 國文學의 專門的인 知識과 方法論을 教授하는 것은 國語學과 國文學 研究의 자질을 길러 올바른 國語教育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敎師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이다. 따라서 이들을 ‘專攻科目’이라 부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일반 대학의 專攻科目과 유사하기는 하나 敎사 양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 따라서 敎科內容을 구성하는 지식의 어느 한 부분을 깊이 研究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師範大學이나 大學院의 各科敎育科에 재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산·알칼리 공학을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工業敎育科가 아닌 工業化學科로 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師範大學 및 大學院 國語敎育科의 졸업 및 학위 논문의 대부분이 人文大 國語國文學科의 그것들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C. 各科 敎育論·敎授法 등으로 대표되는 이 부분은 각 敎科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이는 각 敎科敎育이 ‘敎育’이라는 공통점을 지니는 한편, 각 敎科 나름의 특수성을 갖는데서 비롯된다. 위의 A항과 B항, 그리고 기타 인접과학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이 應用科學 분야는 그것이 敎科敎育의 이론과 실재를 다룬다는 점에서 師範大學 및 大學院의 各科敎育科의 진정한 ‘專攻科目’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가장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敎育이 學習可能性(learnability)보다는 敎育하고자 하는 지식이 근거하고 있는 學問의 觀念的 體系를 중시하고 그 지식의 量과 質, 즉 學習者의 到達點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을 뿐 學習者를 일정 목표에 도달시키는 行動變化 過程 내지 方法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아래의 表 I 은 임의로 뽑은 3개 綜合大⁽⁵⁾의 師範大學 國語敎育科의 敎科目 一覽이며, 表 II 는 3개 綜合大⁽⁶⁾의 大學院 國語敎育科 혹은 國語敎育專功의 敎科目一覽이고, 表 III 은 2개 綜合大⁽⁷⁾의 大學院 國語敎育科와 國語國文學科의 敎科目을 比較해 보인 것이다.

〈表 I〉

교과목종·	필수·선택	I 大	II 大	III 大
B項 담당교과의 전문적 내용 과목	필 수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문강독 국어문법론 국어음운론 현대소설론 국어의미론 고전소설론 국어사 고전시가론 국문학사	국어학개론 문학원론 국문학개론 현대국어문법 현대시론 국어사 국문학사(고대) 국문학사(현대)	國語學概說 韓國文學史 國文學概說 韓國現代文學史 文學原論 國語史 國語文法論
	선 택	국어방언론 현대문화사	국어학사 향토문화론	國語表現法 古典散文學

(5)(6)(7) 表 I. II. III에 引用된 大學은 위에 밝혔듯 임의로 선택된 것이고, 구체적인 校名은 밝히지 않기로 한다.

		근세어강독 고전문학강독 언어학개론 한시론 언어학의시강독 문학론의시강독 고대 및 중세어강독 현대문학강독 국어학사 현대시론 국어화법론 문예비평론 국어학연습 국문학연습	고대소설강독 고대소설론 한문강독 현대소설강독 현대소설론 방언론 문장작법 국어음운론 국어정서법 의미론 수필문학론 이조시가론 현대시강독 한국한문학 고어문법 국어학세미나 향가어요론 고전문학세미나 한국작가론 현대문학세미나	韓國古小說論 中世國語講讀 韓國古詩歌論 國語意味論 韓國文學原典講讀 韓國古典文學特講 詩論 批評論 小說論 現代散文學 國語學特講 國語學史 韓國古典文學演習 韓國民俗學 文藝思潮論 現代文學演習 國語音韻論 古典文法論
C項 담당교과의 교육에 관한 과목	필 수		각과지도법	國語教授法
	선 택		국어교육론	

〈表 II〉

교과목종류	필수·선택	I 大	II 大	III 大
B項 담당교과의 전문적 내용 과목	필 수	국어학연구 국문학연구	언어학이론연구 문학이론연구	국어학연구 한국고전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선 택	고전문학연구 국어음운론연구 학교문법론연구 현대문학연구 국어화법연구 문학평론연구	국어사연구 현대산문연구 고전산문연구 국어구조론연구 국어문법연구 현대시문연구 고전시가연구	국어사연구 고대국어연구 국어문법론연구 한국고전시가연구 한국고전소설연구 한국구비문학연구 한국현대시연구 한국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문학비평연구

				한국문학사방법론
C項 담당교과의 교육에 관한 과목	필수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재연구	
	선택	국어교육론연구 한문교육연구	문학교육연구 언어문자정책론	

〈表 III〉

교과목종류	필수·선택	I 大		II 大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국어국문학과
B項	필수	國語學의 一般理論 國文學의 一般理論	開化期文學論研究 現代文學理論研究 韓國古典文學論研究 韓國古詩歌研究 漢文字論研究 漢文學通論研究 古代國語學 中期國語學 現代國語學	古典文學特講	國語學史特講 國語構造論研究 國文學史研究
	선택	國語發達史研究 國語音韻論 國語構文論 國語形態論 國語意味論 國語文體論 古代國語文法論 國語學演習 國語學背景研究 韓國古詩歌論 韓國古小說論 韓國開化期文學論 韓國文學批評論 韓國現代詩論 韓國現代小說論 韓國戲曲論 韓國比較文學論 韓國文藝思潮史 韓國文學史研究 國文學演習	古代國語研究 中期國語研究 現代國語研究 古代國語學論文演習 現代國語學論文演習 國語系統論研究 國語音聲學特論 國語構造論特講 國語學特論 알다이言語學과 國 語學 現代詩論研究 現代小說論研究 韓國戲曲論研究 作品論特殊研究 作家論特講 I 作家論特講 II 批評論세미나 文學論세미나 韓國近世小說研究 韓國民俗文學研究 韓國古典文學背景論 韓國古典文學文獻學 韓中比較文學論 韓國古典文學研究史	國語學特講 國語音韻論 漢文特講 古典詩學研究 批評研究 國語構造論 國文學史研究 國語學史 現代詩文學研究 戲曲研究 國語意味論 語法研究 現代詩文學研究 國語文法論	國語音聲學 現代國語研究 近代國語研究 中世國語研究 古代國語研究 國語系統論 訓民正音研究 國語學研究方法論 國語音韻論特講 國語形態論特講 國語統辭論特講 國語意味論特講 國語語彙論特講 現代國語音韻論 現代國語文法論 國語音韻史研究 國語文法史研究 國語方言學特講 韓國漢字音研究 文學研究方法論 韓國古典作品論 韓國古典作家論 近代韓國文學研究 現代韓國作家研究

			韓國古典文學思想史 韓國古典文學特殊問題研究		韓國文學批評史 韓國古典隨筆論 歌辭論 現代韓國作品論 現代韓國詩史 現代韓國小說史 比較文學研究 韓國漢文學特講 韓國古典小說特講 韓國古典詩歌特講 韓國說話文學特讀 現代韓國小說特講 現代韓國詩特講 現代韓國詩人研究 관소리論
C項	필수	國語教材 研究 및 教授法		文學教育論	
	선택	國語政策論		國語教育論	

위의 表들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상은 무엇보다 師範大學과 大學院의 國語教育科의 경우에 위에 설명한 C항에 해당하는 教科目이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매우 약세라는 사실이며, 아울러 B항 해당 교과목은 상당히 세분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表Ⅲ의 比較에서 볼 수 있듯이 同校의 國語國文學科의 教科目들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比較를 통해 우리는 師範系大學이 非師範系大學에 대해 그 특성을 어느 만큼이나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 이런 상태에서 師範大學 및 大學院의 國語教育科 卒業生들이 ‘文學’이나 ‘語學’을 專攻하고 ‘國語教育’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러한 國語教育科와 國語國文學科 사이의 教科課程의 類似性은, 서울大學校의 경우 조금 낫다고는 할 수 있으나 理想的이라고는 할 수 없는 教科課程을 보여 준다.

<表 IV>

교과목종류	국 어 교 육 과		국 어 국 문 국 과	
	학 부	대 학 원	학 부	대 학 원
B項	國語學概論	國語音韻論研究	國語學概論 I	國語形態論
	國語話法	國語意味論研究	國語學概論 II	國語統辭論
	國文學概論	言語發達研究	國文學概論	國語語彙論
	國語學講讀 I	韓國古典詩歌研究	韓國現代文學講讀	國語意味論
	教育漢文	韓國古典散文研究	國語學講讀 I	國語系統論
	國語矯正音韻論	韓國民俗文學研究	國文古典講讀	國語音韻論特講
	現代韓國散文	韓國戲曲研究	國語史	國語史特講
	國語史	現代韓國詩研究	國文學史 I	國語學史特講

- | | | | |
|--------------|----------|------------|----------------|
| 國文學史 I | 現代韓國散文研究 | 國文學史 II | 國語學演習 I |
| 國文學史 II | 韓國文學思想研究 | 國語音韻論 | 國語學演習 II |
| 國語學講讀 II | 韓國文學批評研究 | 國語文法論 I | 國語音聲學 |
| 國語文體論 | 比較文學研究 | 國語文法論 II | 國語文字論 |
| 韓國古典詩歌論 I | 修辭學研究 | 國語學講讀 II | 國語文體論 |
| 韓國古典小說論 | | 韓國古典詩歌論 I | 國語方言學特講 |
| 韓國民俗文學 | | 韓國古典小說論 | 韓國社會言語學特講 |
| 現代韓國詩論 | | 韓國漢文學概論 | 國語學研究方法論 |
| 國語意味論 | | 現代韓國詩論 | 韓國漢字音研究 |
| 韓國古典詩歌論 II | | 韓國現代詩人論 | 古代國語研究 I |
| 韓國古典散文(非小說類) | | 現代韓國小說論 | 古代國語研究 II |
| 韓國演劇史 | | 韓國現代作家論 | 中世國語研究 I |
| 韓國文學批評 | | 國語學史 | 中世國語研究 II |
| 韓國文學背景論 | | 國語方言學 | 近代國語研究 I |
| 比較文學 | | 韓國古典詩歌論 II | 近代國語研究 II |
| | | 韓國口碑文學論 | 現代國語研究 I |
| | | 漢文古典講讀 | 現代國語研究 II |
| | | 韓國古典文學演習 | 國語音韻論演習 |
| | | 韓國現代批評 | 國語形態論演習 |
| | | 韓國現代戲曲論 | 國語統辭論演習 |
| | | 開化期文學論 | 國語意味論演習 |
| | | 韓國現代文學演習 | 國語語彙論演習 |
| | | | 國語學史演習 |
| | | | 國語音韻史特講 |
| | | | 國語文法史特講 |
| | | | 國語系統論特講 |
| | | | 韓國古詩歌韻律研究 |
| | | | 韓國古典小說의 敘事構造研究 |
| | | | 韓國傳統劇研究 |
| | | | 現代文體美學 |
| | | | 現代批評論特講 |
| | | | 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研究 |
| | | | 高麗歌謠研究 |
| | | | 鄉歌研究 |
| | | | 韓國民俗文學特講 |
| | | | 韓國古典作家論演習 |
| | | | 韓國古典作品論演習 |
| | | | 韓國漢詩演習 |
| | | | 朝鮮時代漢文演習 |
| | | | 韓國文學思想特講 |
| | | | 韓國古典批評研究 |
| | | | 韓國古典文學史研究方法 |
| | | | 開化期文學論演習 |
| | | | 現代韓國詩演習 |
| | | | 現代韓國小說演習 |
| | | | 現代韓國戲曲演習 |

				現代韓國詩史研究 現代韓國小說史研究 外國文學受容史研究 現代韓國文學思想特殊研究 現代韓國批評史研究 韓國現代文學史研究方法 時調論 歌辭論 관소리 辭說論 韓國說話文學論 韓國漢文學史 韓國漢文小說演習 韓國古典文學研究方法 開化期詩歌論 開化期小說論 現代韓國文藝思潮論 現代韓國文學特講 現代韓國作家論特講 現代韓國文學研究方法 現代韓國詩人論特講
C項	國語教育論 言語學과 言語教育 言語教育講讀 文學教育講讀 國語教材論 文學과 文學教育 教育國文法	言語政策研究 教育國文法研究 國語教授法研究 國語教育評價研究 國語教育史研究 文學教育研究 國語教材論研究		

2. 國語教育科 教科課程의 基本要件

거듭되거니와 師範大學·大學院의 國語教育科는 中高等學校 國語科 教育擔當者 養成을 그 教育目標로 하는 바 사범대학 및 대학원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은 이에 적합하게 짜여져야 한다. 국어과 교육담당자란, 물론 국어과 교육을 담당할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국어과 교육이란 무엇을 말하며 흔히 말하는 國語教育과는 그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우선 용어면에서 ‘國語科 教育’은 ‘國語教育’과 흔히 혼동되기도 한다. 물론 ‘國語教育’은 ‘國語科 教育’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학교에서 國語를 가르치는 일도 이제까지 ‘國語教育’이라고 불리워 온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들 둘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혼동될 수 없는 개념들이다. 우선 ‘國語教育’이란 日常 國語 生活에 관계된 諸般 教育이라 볼 수 있는 반면 ‘國語科 教育’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⁸⁾

- ① 文敎部令으로 公布되는 教育課程令 중 國語科에 따라
-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 國語科 敎師가

(8) 崔昌烈; 國語敎授法, 開文社, 1978.

- ③ 學校의 教育計劃에 따라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 ④ 教育받은 사실을 장차 객관적으로(學歷)인정받을 사람들(學生)에게 베푸는 教育

이렇게 볼 때 國語科 教育은 매우 중요한 일부로서 國語教育을 포함하며, 國語教育의 가장 영향력이 큰 시행방법은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國語科 教育인 셈이니 이들이 매우 밀접한 관계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으며 상호 대체가 가능한 개념들도 아니다.

그러면 이러한 國語科 教育 擔當者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고등학교 教育課程에 나타나 있는 國語科 教育의 一般目標의 達成이다.

(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국어 사용의 기능을 신장하고 성실한 태도를 길러서,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나)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길러서, 발전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스스로 앞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

(다) 국어를 통하여, 바르게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힘과 풍부한 정서와 아름다운 꿈을 길러서, 원만하고 유능한 개인과 건실한 국민으로 자라게 한다.

(라) 국어 존중의 뜻을 높이고, 국어로 표현된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 하여,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는 마음을 굳게 하도록 한다.

또한 中·高等學校 教育課程은 言語의 네 기능, 각 영역별 지도사항과 주요 형식및 국어과 특유의 지식 체계를 지도하기 위한 제재 선정의 기준을 두고 있다. 國語科 教育 擔當者는 위 教育目標 달성을 위해 지식과 태도 및 기능면에서 충분한 기반을 갖춘 실천인이라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 노력의 전문적 연구인일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기본적으로, 國語科 教育 擔當者는 그가 教師이건 獎學士이건 師範大學의 教授이건 일상 국어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니, 標準語·正書法은 물론 朗讀과 글씨 문제까지 이에 관련된다.⁽¹⁰⁾ 왜냐하면 國語時間은 전달되는 지식의 내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담은 그릇(教師의 글 말)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즉 국어시간에 학생들은 教師의 청중으로서 출석하는 것이 아니며, 國語科 教育에 있어서 教材와 教育發展에 사용되는 言語인 國語는 教科內容·傳達를 위한 記號媒體(linguistic code, 혹은 metalanguage라 해도 좋다)인 동시에 매우 중요한 教育 命題로서 ‘教育擔當者의 國語는 그 자체로서 學習者의 도달점이 구체적 모델⁽¹¹⁾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투리를 쓰거나 난필인 國語科 教師가 만약 있다면, 과연 효과적인 國語教育을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기계적인 言語訓練이나 習字보다는 품위있는 言語生活의 주체자로서 教師像을 요구한다. 이는 中·高等學校 教育目標 달성의 가장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 점이나, 현행

(9) 文教部令 第325號, 中學校 教育課程, 1973. 8. 31.

(10) 李應百外; 國語教育, 韓國放送通信大學, 1978., pp.106-109 참조.

(11) E. Genouvrier; Pour une Pédagogie du Français Langue Maternelle, Tours, éd B.R.E.F., 1979. 序論을 참조.

師範大學 및 大學院의 國語教育科 教科課程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國語科 教育擔當者는 장차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教育內容에 정통해야 한다. 이 教育內容이란 教科書라는 유형물 속에 그 最少限이 혹은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실려 있다. 教科書에 실려 있는 대부분의 설명문 및 논설문이 교육 내용을 明示적으로 실고 있다면 文學作品은 그 반대의 경우라 할 것이다. 國語科 教科書는 실로 광범한 영역을 담고 있다. 言語로서의 國語教育은 물론 文法·國語史를 포함하는 국어학으로부터 각 시대, 각 나라, 각 장르별 文學作品 및 그 鑑賞과 批評, 심지어는 각종 實用文 쓰기가 이에 포함되며, 어느 경우건 社會·文化·哲學의 전문적 지식을 要한다. 國語教育擔當者는 이 모든 면에 높은 素養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실령 국어과 교육의 어느 영역에 취미가 없더라도 일단 교수할 책임이 있는 이상 해당 분야의 지식에는 투철해야 한다. 또 教育 內容을 향한 개인적 의견에 의해 教育內容을 취사·선택할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다. 일단 정해진 教育 目標 앞에서 그들은 맡은 바 教育內容을 충실히 전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教科教育擔當者가 학문 전달의 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상황에 따른 신축성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極限的 思考 方式에 가까워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이론, 思潮나 方法論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이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적시적소에 이용되어야지 충분한 사전 연구나 자기 소화없이 성급히 교육현장에 이용되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위대로운 실험일 뿐이다. 教育擔當者는 일단, 주어진 바의 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教科教育擔當者는 각 영역의 전문적 지식의 創造者일 수는 없다. 하지만 教科教育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야 하는 수많은 의사 결정에 확실한 전문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쉬운 예로 ‘맞춤법’의 경우를 보면 國語科 教育擔當者는 완벽한 맞춤법의 구사는 물론 맞춤법 통일안의 원리 및 그것을 결정한 일반 국어학 및 언어학의 이론에 전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國語科 教育擔當者 養成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漢字·漢文의 教育이다. 이는 당국의 言語文字政策이나 학자들의 주장, 教育擔當者 자신의 한자·한문 교육에 관한 의견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國語科 教育의 핵심이 되는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고, 漢文文化(中國文化가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文化를 이해한다는 것은, 아직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심적인 教育擔當者라면 教育政策의 혼란으로 말미암는 被教育者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줄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教育內容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소유가 國語科 教育擔當者가 갖추어야 할 德 目的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教科教育擔當者란 어떠한 지식의 所有者가 아니라 傳達者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詩를 쓰는 것은 시인의 일이요, 그것의 文學史的 意義를 연구하는 것은 문학연구가의 일이며, 시에 쓰인 언어의 문체는 언어학자, 예술적 가치 평가는 비평

가의 일인 반면, 어떤 각도에서든 한 편의 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담당자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담당자는 이러한 지식의 전달에 관한 理論과 實際에 정통해야 한다. 또 傳達 效果의 極大化를 위한 지식의 構造化에도 일가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教授法이나 教育方法論, 그리고 教育에 대한 유형·무형의 준비 기술을 일컫는다. 교육의 효과란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教授行爲의 기술도 문제지만 教育者와 被教育者, 그리고 관찰자의 다면적인 評價 데이터(data)를 가지고 기왕의 교육을 分析·評價하여 차후의 교육 설계와 전개의 해당부분을 검토·개선해 가는데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수업평가를 포함하는 각종 교육 평가의 영역이며, 여기서 우리는 각 교과 담당자의 분야별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즉, 국어과 교사와 장학사가 꼭 같은 전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원칙적으로 모든 教育擔當者는 教師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教育이란 현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며 현장에 대한 이론과 실제의 넓고도 깊은 지식이 없이 教育에 대해 연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獎學士는 國語科의 教育內容과 教育方法論에 정통하고 국어과 장학의 이론과 실제를 알아야 한다. 國語教育 및 國語科 教育 政策樹立者나 國語科 擔當 文敎行政 要員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또 國語教育 및 國語科 教育 專門研究人의 경우 각자가 다루는 분야는 비교적 좁혀지지만 국어과 교육을 구성하는 교육내용, 교수법 전반과 그 유기적 관계에 정통해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教科教育擔當者 양성은 두 단계로 나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1단계는 教師의 양성이요, 2단계는 기타 전문인의 양성이 된다.

나아가서 國語科 教育擔當者는 넓은 의미의 국어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言語 醇化 등 국민 언어생활의 문제를 학교 밖의 문제라 하여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 사회와 大衆 心理, 그리고 大衆 傳達(mass communication)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해야 한다. 매스콤은 각종 언어를 그 매체로 하며 특히 양적인 면에 있어서 言衆이 늘 접하고 있는 언어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國語教育擔當者란 첫째, 일상 국어생활의 살아 있는 모델이며, 둘째, 현장에서는 교사, 셋째 國語教育 研究者, 넷째 國語政策樹立者를 일컫는 말이라 보겠는데 현행 國語教育科의 教科課程에서 이들 각각을 위해 설정하고 있는 教科目은 실로 미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새로운 教科目 體制의 構想

무엇보다도 國語教育科의 教科課程은 이제까지 논의한 바의 國語科教育擔當者가 갖추어야 할 각종 지식의 基礎構造(basic structure)에 충실해야 한다. 여기서 基礎 構造란 한 學問의 上下左右를 貫通하는 통로로서의 필수적인 基本을 말한다.⁽¹²⁾ 國語教育科의 경우를 보

(12) 鄭範謨, 教育과 教育學, 培英社, 1976.

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㉑ 「國語」自體에 대하여

國語學 및 國語史 一般, 國語 文字의 論과 史

㉒ 國語로 表現된 文化에 대하여

文學原論, 國文學史, 國文學 作家·作品論

㉓ 國語使用의 機能에 대하여

標準語, 正書法, 實用文을 포함한 각종 作文, 朗讀法, 話法 기타.

國語教育科의 教育은 위 ㉑~㉓項에 該當하는 知識의 蓄積에서 그치지 않고 그 教授의 理論 및 實踐의 技術까지를 體得하도록 해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一項이 필수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㉔ 國語科 教育을 위하여

위 ㉑~㉓項 內容의 教授法, 國語教育의 歷史와 展望, 國語科 教材·授業·評價論, 國語科 學事管理 및 獎學論, 國語政策論, 國語教育研究方法論, 國語教育方法論研究 等

위 ㉑~㉓項 가운데에서 學部에서 꼭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㉑, ㉒, ㉓ 三項과 ㉔項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大學院에서는 ㉔項 해당 과목의 研究에 치중해야 한다. 學部和 大學院 사이에 學問의 계통성에 비추어 그 연관성이 뚜렷해야 함은 물론이다. 國語教育科의 教科課程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 과학(國語學, 國文學의 순수 이론 부분과 教育學 一般 等)은 해당 학과의 긴밀한 연락으로 教授되어야 하되, 언제나 그것이 '國語科教育'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本稿가 제시하려는 師範大學 및 大學院 國語教育科의 教科課程은, 어느 教科課程과 마찬가지로, 필수교과에 선택교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수단위와 학년별 배정은 그때 그때 상황에 비추어 융통성있게 하도록하면 될 것이다.

教科目 一覽

A. 學部(學士課程)

1. 필 수

1.1. 國語科 教育 分野

1.1.1. 國語教育學概論

1.1.2. 國語科教材論

1.1.3. 國語科教育評價

1.1.4. 國語科授業의 運營과 分析

1.1.5. 標準語와 言語矯正

1.1.6. 맞춤법과 正書法原理

1.1.7. 國語表現指導 I (音聲言語)

- 1.1.8. 國語表現指導Ⅱ(文字言語)
 - 1.1.9. 讀解指導
 - 1.2. 國語科 教育內容 分野
 - 1.2.1. 國語學概論Ⅰ,Ⅱ
 - 1.2.2. 學校文法研究
 - 1.2.3. 文學原論
 - 1.2.4. 國文學概論Ⅰ,Ⅱ
 - 1.2.5. 文學教育論
 - 1.2.6. 教育漢文
 - 2. 선택
 - 2.1 國語科 教育 分野
 - 2.1.1. 外國人을 위한 國語教育 入門
 - 2.1.2. 國語教育研究方法論 入門
 - 2.1.3. 國語教育方法論研究 入門
 - 2.1.4. 教材分析·製作 入門
 - 2.1.5. 國語政策論 入門
 - 2.1.6. 國語科 獎學斗 學事管理 入門
 - 2.1.7. 國語科教育課程論
 - 2.1.8. 國語科對象分析論
 - 2.1.9. 讀書指導論
 - 2.2. 國語科 教育內容 分野
 - 2.2.1. 國語學講讀
 - 2.2.2. 國文學講讀
 - 2.3. 其他 關聯 分野
 - 2.3.1. 言語斗 社會
 - 2.3.2. 言語統制論
 - 2.3.3. 特殊語研究
 - 2.3.4. 韓國文化背景論
 - 2.3.5. 言語發達
 - 2.3.6. 言語心理
 - 2.3.7. 漢字·漢文 教育論
- B. 大學院(碩士課程)
 - 1. 選 修

國語科教育研究方法論研究

2. 선택

- 2.1. 國語學의 各 分野와 國語科教育
- 2.2. 國文學 장르別 教育方法論
- 2.3. 國語科 授業 分析·評價 研究
- 2.4. 國語政策論 研究
- 2.5. 國語科 教材 分析·製作 研究
- 2.6. 國語科 教育評價 研究
- 2.7. 言語統制論研究
- 2.8. 言語矯正論研究
- 2.9. 學校文法研究
- 2.10. 國語科教育課程開發論
- 2.11. 國語科 教育對象論 研究
- 2.12. 外國人을 위한 國語教育論 研究
- 2.13. 國語科 教育資料論
- 2.14. 教師 再教育論

이상과 같은 교과과정에 속하는 각각의 敎科內容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A. 學 部

1.1.1. 國語教育學概論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성격과 그 개요를 파악하여 국어과 교사 및 국어과 교육 연구인의 기틀을 마련한다.

1.1.2. 國語科教材論

국어과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에 관한 일반 이론을 공부하고 現行 教材의 체제와 내용에 대해 검토한다.

1.1.3. 國語科教育評價

一般教育評價理論에서 한 걸음 나아가 國語科의 特殊性을 살린 評價의 理論과 實際를 교수한다.

1.1.4. 國語科授業의 運營과 分析

國語科 授業의 理論과 여러 가지 수업분석법에 대해 교수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실습과 현장교육에 임하도록 한다.

1.1.5. 標準語와 言語矯正

標準語의 使用을 익히고, 그 원리와 言語矯正의 理論과 實際를 앎으로써 표준어 교육의 기본이 되게 한다.

1.1.6. 맞춤법과 正書法 原理

맞춤법과 正書法을 익히고 그 원리를 앞으로써 그 教育에 입할 수 있도록 한다.

1.1.7. 國語表現指導 (音聲言語)

바른 發音·朗讀法 및 話法을 익히고 그 원리와 교수법을 연구한다.

1.1.8. 國語表現指導Ⅱ(文字言語)

각종 형태의 文章과 文의 分析法을 연구하고 教育에의 응용방법을 모색한다.

1.1.9. 讀解指導

非文學教材의 理解에 對해 연구하고 讀解能力 向上을 위한 指導方法을 모색한다.

1.2.1. 國語學概論Ⅰ.Ⅱ

國語學의 各分野 및 國語史 全般을 概觀함으로써 國語에 對한 全般的인 理解를 돕고 나아가서 그 教育의 學問的 基礎를 이루게 한다.

1.2.2. 學校文法研究

現行 學校文法의 內容과 原理를 알고 一般文法學에 根據한 分析 및 評價로써 보다 合理的인 學校文法의 開發과 教授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2.3. 文學原論

文學의 一般的 原理를 습득하고 나아가서 그 理解와 올바른 鑑賞에 대해 연구한다.

1.2.4. 國文學概論Ⅰ.Ⅱ

國文學의 概要와 그 文學史 全般을 살피고 代表的인 作家·作品에 對해 연구함으로써 장차 그 教授의 기초를 쌓는다.

1.2.5. 文學教育論

文藝文의 올바른 감상과 習作 指導法을 中心으로 中等學校 校生 相對의 文學教育에 對해 論究한다.

1.2.6. 教育漢文

國語·國文學의 理解에 基本的인 漢字漢文의 學習으로 國語의 意味構造 및 國文學思想 理解의 기초실력을 쌓는다.

2.1.1. 外國人을 爲한 國語教育 入門

韓國語를 배우고자하는 재미교포 및 外國人을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해 그 특수성을 中心으로 연구한다.

2.1.2. 國語教育研究方法論 入門

보다 깊은 국어 및 국어과 교육연구의 방법론에 대해 그 이론과 실재를 교수하여 국어교육 연구 전문인 양성의 기틀을 이룬다.

2.1.3. 國語教育方法論研究 入門

보다 효과적인 國語 및 國語科 教育을 위한 方法論의 理論과 實際를 연구한다.

2.1.4. 教材分析・製作 入門

有形無形의 各種 敎材를 분석하고, 敎材화 可能性이 있는 각종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敎材改善 및 새로운 敎材 제작의 방안을 모색한다.

2.1.5. 國語政策論 入門

國語 및 國語科 敎育 政策을 포함한 각종 언어 문자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대해 연구한다. 또한 이제까지의 정책사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다.

2.1.6. 國語科 獎學과 學事管理 入門

단순한 授業分析에서 나아가 國語科에 대한 종합적 獎學과 學事管理에 대해 연구한다.

2.1.7. 國語科敎育課程論

國語科 敎育課程의 歷史와 그 改善 方向을 검토하고 그 內容을 分析하여 보다 나은 國語科 敎育의 設計와 시행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2.1.8. 國語科 對象分析論 入門

국어과 敎育의 대상인 中等學校 學生의 學習心理的 상태와 言語能力을 國語敎育의 側面에서 分析하고, 그 分析結果를 敎育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 훈련을 실시한다.

2.1.9. 讀書指導論

讀書指導에 對한 理論과 實際를 國語科敎育 및 社會敎育의 양면에서 연구한다.

2.2.1. 國語學講讀

國語學의 理解를 돕기 위한 각종 國語學資料를 講讀한다.

2.2.2. 國文學講讀

國文學의 理解를 돕기 위한 각종 國文學資料를 講讀한다.

2.3.1. 言語와 社會

言語와 社會와의 關係를 言語社會學의 入場에서 연구하고 사회 내에서의 국어敎育에 對해 탐구한다.

2.3.2. 言語統制論

新造語, 外來語 및 外國語를 국어敎育의 차원에서 관리 통제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2.3.3. 特殊語研究

隱語・俗語나 職業語 등 사회의 一角에서만 쓰이는 언어들을 수집, 연구하여 언어현상의 이해와 언어 순화 연구의 자료로 삼는다.

2.3.4. 韓國文化背景論

國語・國文學의 바탕을 이루는 한국문화의 배경을 文化史・思想史 및 民俗學的 立場에서 연구한다.

2.3.5. 言語發達

言語研究의 기본이 되는 언어의 습득과 발달에 대해 연구한다.

2.3.6. 言語心理

人間的 言語를 지배하는 각종 心理的 要因 및 현상에 對하여 연구한다.

2.3.7. 漢字·漢文教育論

國語科教育의 重要한 一部인 漢字·漢文教育에 對해 資料的 方法論的 側面에서 연구한다.

B. 大學院

1. 國語科教育研究方法論研究

國語教育을 포함한 國語科教育의 전문적 연구를 위한 각종 方法論의 이론과 실재를 연구한다.

2.1. 國語學의 各 分野와 國語科教育

國語學의 各 分野와 國語科教育에 對한 關係를 검토하고 國語學의 國語科教育에의 利用 可能性과 그 方法에 대해 연구한다.

2.2. 國文學 장르別 教育方法論

國文學의 各 장르別 作品에 對하여 그 教育을 위한 方法論을 연구한다.

2.3. 國語科 授業 分析·評價 研究

국어과 수업에 對하여 그 수업의 分析, 평가 이론을 연구하여 그 응용이나 개선에 대해 논의한다.

2.4. 國語政策論 研究

국어 및 국어과 教育을 주도하는 각종 언어·문자 政策을 검토하며 그 수립의 원리와 실행 및 효과의 진단에 대해 연구한다.

2.5. 國語科 教材 分析·製作 研究

國語科에서 쓰이고 있거나 쓰일 가능성이 있는 각종 敎材 및 資料를 수집하여 검토·평가하여 敎材 개선 및 보다 나은 敎材 製作을 위한 研究를 한다.

2.6. 國語科 教育評價 研究

각종 資料 分析을 통한 국어과 敎育평가의 이론과 실제의 研究를 통해 국어과 敎育평가 이론의 정비와 개발의 方法을 모색한다.

2.7. 言語統制論研究

新造語·外來語 및 外國語의 수용 과정과 그 유통, 그리고 국어의 바른 사용을 위한 관리·통제에 대해 연구한다.

2.8. 言語矯正論 研究

출신 지역이나 성장 환경의 차에서 오는 부적합한 언어의 사용 및 신체장애로 인한 비정상어를 교정하기 위한 각종 研究를 실시한다.

2.9. 學校文法研究

현행 學校文法의 구조와 원리를 살리고, 일반문법학에서 말하는 학문 문법과의 비교 연구를 실시한다.

2.10. 國語科教育課程開發論

國語科 教育課程의 分析·研究와 일반 教育課程開發論의 연구로 國語科 教育課程의 改善 및 開發 方案을 모색한다.

2.11. 國語科 教育對象論 研究

國語科의 教育對象에 對한 넓고도 깊은 연구를 실시한다.

2.12. 外國人을 위한 國語教育論 研究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제외 교포 및 외국인을 위한 국어교육에 대해 그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내용·교재 및 교수법 개발에 대해 연구한다.

2.13. 國語科 教育資料論

國語科 教育에 쓰일 수 있는 有形無形의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새로운 교육 자료 개발에 힘쓴다.

2.14. 教師 再教育論

이른바 '研修'과 불리우는 현직 교사의 재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이상의 教科目은 그 開設에 앞서 그 教授要員의 養成이 전제되어야 하며, 각 교과내용의 세부에 대한 넓고도 깊은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또, 學部 및 大學院 教育을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博士課程의 設置가 시급히 요청된다.

學部和 大學院에서의 專攻 細分化도 중요한 문제이다. 美 Pittsburgh大의 경우, 「言語에 의한 의사교환(Language Commumcation)」이라는 하나의 명제에 대하여 석사과정과 박사과정(Master/Doctor of Education in Language Communication)⁽¹³⁾이 설치되어 있고, 그와 병

(13) Pittsburgh大 Curriculum 79년版.

참고로, 이 학교의 석사과정(Graduate Course)의 교과목을 보면,
General.

Survey of Reading in the Schools
Teaching Strategies
The Context for Reading and Language Instruction
Language and the Reading Process
Reading Specialization
Methods and Materials
Diagnosis and Correction of Reading Problems
Supervised Clinical Experiences
Teaching Strategies
English Specialization
The English Curriculum
Teaching Composition
Teaching Litterature
Master Teacher Development
Language Acquisition of Childrens

행해서, 혹은 독립적으로 讀書指導에 관한 각종 자격증(Certification)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전문연구인의 양성에 있어서 학위과정이 아닌 전문과정을 들은 효과적일 수 있다. Paris III大學의 언어교육사자격증⁽¹⁴⁾과정이 그와 같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현직교사들이 모여서 教育內容과 教材의 內容을 分析·檢討하고 새로운 教案 및 評價紙 製作을 시도하여, 그 결과를 현장에 적용, 수정해 나가는 Paris VII大의 DIREL⁽¹⁵⁾과 같은 성격의 세미나도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의 예가 된다. 또한 M. Levy가 이끄는 Lycée Claude Monet의 국어과 교사진이 프랑스 언어학계 최첨단의 이론⁽¹⁶⁾을 현장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 내고 있는 교안집⁽¹⁷⁾은 학문과 현장교육이 서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結

教育行爲의 專門化를 위해 教育課程, 教育制度를 修正補完하는 教育改革의 움직임이 全

- Communication Experiences and Assessment in Early Childhood Internship experiences
- Reading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 Diagnostic Teaching of Language Art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 Reading Programmes in Secondary Schools
- Reading Diagnosis and Correction in the Classroom
- Practicum in Reading Diagnosis and Remediation
- Perceptual Deficits in Communication Skills
- Creative Communication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 Experience in Dramatics
- Dramatics in the Classroom
- Teaching Reading in the Content Areas
- Reading and English in an Urban Setting
- Research Seminar
- Advanced
- Major Issues in Reading and English Instruction
- Psycholinguistic and Sociological Bases for Reading and Language
- Development
- Internship in Language Communications
- Curriculum in Reading
- Leadership in Improving Communications Instruction
- Developing Communications Programs
- Practicum in Supervision of Reading and Language Instruction
- Diagnosis and Correction of Complex Language Difficulties
- Diagnosis and Correction of Complex Reading Difficulties
- Reading Instruction in the College
- English Instruction in the College

(14) Diplôme de Didactique des Langues, E.F.P.E Univ. de Paris III.

(15) Département Interdisciplinaire de l'Enseignement des Langues, Institut Charles V. Univ. de Paris VII.

(16) Linguistique de l'Enonciation

(17) M. Levy et son équipe de recherche pédagogique de Français; Fiches Pédagogiques d'un Programme Expérimental de Grammaire du Français, Argenteuil, Lycée Claude Monet

世界的으로 번지고 있음은 序論에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그러나 教育課程의 改善에서 理想的인 模型을 하나 提示하지 못하고 있음은 事實이며 그 중요한 원인은 教育專門家들이 모두 自身の 特定한 分野만을 研究할 뿐 그 結果를 綜合하는 應用科學이 疎忽히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師範大學 大學院의 教育課程은 師範大學 學部の 教育課程이나 中等學校教科와도 有關하기 때문에 그 改善은 더욱 容易한 것이 못된다.

師大는 中等學校 教師養成을 爲主로 하지만 教科內容과 그 教育에 대한 專門研究人, 教育政策樹立者 및 教育行政家등 넓은 意味의 教科教育擔當者를 양성해야 한다는 위치에서 그 教育課程의 模型 檢討가 切實히 要請된다 하겠다.

이러한 趣意에서 本攷는 中高等學校의 國語科 教育, 나아가서 師大 및 그 大學院의 現行 教科課程을 檢討하고 보다 나은 教育을 위한 教育課程·模型을 提示하고자 한 것이다.

本攷에서 論議된 內容을 要約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現行 教育課程의 問題點은 그것이 硬直된 知識傳達 爲主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教科目體制 역시 學問分類 기준에 準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가르쳐야 할 內容이 充分히 體系化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教育課程의 開發 및 運營體制는,

開發→教師訓練體制確立→現場投入→繼續의 評價

와 같은 圖式이 成立되어야 할텐데, 지금까지의 教育課程 開發은,

開發→短期間教師研修→現場投入

이러한 圖式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리고 師大·大學院의 國語教育科 教育과정을 擔當教科의 專門的內容 即 專攻科目이 人文大學의 內容과 너무도 類似하며, 教科教育에 關聯된 內容 즉 國語科教育論, 國語科教授法 등에 관한 教育과정이 量的으로나 質的으로 弱勢인 것이다.

둘째로, 國語科教育課程의 基本要件은 중·고등학교 教育담당자 양성에 적합하게 다시 말하면 중·고등학교 教育과정에 나타나 있는 國語科 教育의 一般目標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국어생활의 모범이 되도록 標準語, 正書法, 朗讀, 글씨 등에 철저히 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르쳐야 할 教育內容에 또한 精通해야 한다. 국어교육, 文法, 國語史 文學作品에 대한 賞鑑·批評, 實用文쓰기 등에 造예가 깊어야 한다.

그리고 漢字·漢文의 教育도 능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말의 大部分은 漢字語이며, 우리의 文化는 漢文化를 떠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이러한 여러가지 基本要件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의 模型을 提示해 둔다.

〈教科目 一覽〉

A. 學部(學士課程)

1. 必 須

1.1. 國語科 教育 分野

- 1.1.1. 國語教育學概論
- 1.1.2. 國語科教材論
- 1.1.3. 國語科教育評價
- 1.1.4. 國語科授業의 運營과 分析
- 1.1.5. 標準語와 言語矯正
- 1.1.6. 맞춤법과 正書法原理
- 1.1.7. 國語表現指導 I. (音聲言語)
- 1.1.8. 國語表現指導 II. (文字言語)
- 1.1.9. 讀解指導

1.2. 國語科 教育內容 分野

- 1.2.1. 國語學概論 I. II.
- 1.2.2. 學校文法研究
- 1.2.3. 文學原論
- 1.2.4. 國文學概論 I. II.
- 1.2.5. 文學教育論
- 1.2.6. 教育漢文

2. 選 擇

2.1. 國語科 教育 分野

- 2.1.1. 外國人을 위한 國語教育 入門
- 2.1.2. 國語教育研究方法論 入門
- 2.1.3. 國語教育方法論研究 入門
- 2.1.4. 教材分析 製作 入門
- 2.1.5. 國語政策論 入門
- 2.1.6. 國語科 獎學과 學事管理 入門
- 2.1.7. 國語科 教育課程論
- 2.1.8. 國語科 對象分析論
- 2.1.9. 讀書指導論

- 2.2. 國語科 教育內容 分野
 - 2.2.1. 國語學講讀
 - 2.2.2. 國文學講讀
- 2.3. 其他關聯 分野
 - 2.3.1. 言語와 社會
 - 2.3.2. 言語統制論
 - 2.3.3. 特殊語研究
 - 2.3.4. 韓國文化背景論
 - 2.3.5. 言語發達
 - 2.3.6. 言語心理
 - 2.3.7. 漢字·漢文教育論

B. 大學院(碩士課程)

- 1. 必 須
 - 國語科教育研究方法論研究
- 2. 選 擇
 - 2.1. 國語學의 各分野와 國語科教育
 - 2.2. 國文學 장르別 教育方法論
 - 2.3. 國語科 授業分析·評價研究
 - 2.4. 國語政策論研究
 - 2.5. 國語科 教材分析·製作研究
 - 2.6. 國語科 教育評價 研究
 - 2.7. 言語統制論研究
 - 2.8. 言語矯正論研究
 - 2.9. 學校文法研究
 - 2.10. 國語科 教育課程開發論
 - 2.11. 國語科 教育對象論研究
 - 2.12. 外國人을 위한 國語教育論研究
 - 2.13. 國語科教育資料論
 - 2.14. 教師再教育論

위에 열거된 教育課程의 模型提示는 本攷의 根幹이며 核心이다. 大學院 教育課程을 學部의 教育課程과 分離해서 理解한다는 것은 無理이겠기 나란히 놓았다.

하루 속히 이러한 模型을 師大·大學院 교육과정에 投入시켜야 함은 물론 이와 관련된

改善은 앞으로도 持續的인 움직임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研究를 위해 大學院 國語教育科에 博士課程을 設置해야함은 너무도 當然한 措處가 아닐까 한다.

參 考 文 獻

金敏洙外；國語教育論，一潮閣，1973.

李榮德外；教育課程 開發의 原理，韓國教育開發院，1978.

李應百外；國語教育，韓國放送通信大學，1978.

鄭範謨；교육과 教育學，培英社，1976.

崔昌烈；國語教授法，開文社，1978.

E. Genouvrier: Pour une Pédagogie du Français Langue Maternelle, Tours, éd B.R.E.F. 1979.

Halliday et al: The Linguistic Sciences and Language Teaching, London. Longman, 1964.

A.V. Kelly: The Curriculum, London, Harper and Row, 1977.

M. Levy et al: Fiches Pédagogiques d'un Programme Experimental de Grammaire du Français, Argenteuil, Lycée Claude Monet, 1977.

M. de Montmollin: Enseignement Programmé, Paris. P.U.F. 75.

現行教育法

現行教育課程

各大學 教科課程便覽